

## 《古本老乞大》에 사용된 “了”의 統辭 意味에 관한 研究

金 光 照\*\*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3. 動作 또는 變化의 完成 了 <sub>c</sub> |
| II. 《古本老乞大》의 “了”           | 4. 狀態의 實現: 了 <sub>d</sub>      |
| 1. 完結 動詞 了 <sub>a</sub>    | 5. 새로운 狀況의 出現: 了 <sub>e</sub>  |
| 2. 結果의 動相補語 了 <sub>b</sub> | III. 맺는 말                      |

### I. 들어가는 말

現代 漢語에서 “了”로 표기되는 글자는, “끝마치다” 의미의 동사 [liau]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문법 범주의 助詞로 많이 사용된다. 조사로서의 “了”는 [li]로 발음되는데, 통사적으로 동사 또는 형용사에 직접 부가되는 “了<sub>1</sub>”과 文末에 첨가되는 “了<sub>2</sub>”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了<sub>1</sub>”은 동사(형용사 포함)를 직접 후행하는 위치에 출현하기 때문에 보통 動詞 接尾辭로 분석된다. 문법 의미로는 동작이나 변화를 의미하는 동사에 첨가되는 경우에는 “동작 또는 변화의 완성”, 그리고 정태 동사 및 형용사에 부가되는 경우에는 “상태의 실현”의 문법 의미를 표시한다. “狀態의 實現”은 일종의 변화 과정의 완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了<sub>1</sub>”은 일반적으로 “完成”을 표시하는 “動態助詞”로 분류된다.<sup>1)</sup> “了<sub>2</sub>”는 통사적으로, “了<sub>1</sub>”이

\* 본 논문은 2003년도 인제연구장학재단의 연구비 보조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仁濟大學校 國際語文學部 教授.

1) 중국학자들은 “了<sub>1</sub>”을, “動態助詞”, “形尾”, “詞尾”, “完成體標記” 등 다양한

동사 또는 형용사에 직접 첨가되는 것과는 달리, 文末에 첨가되어 보통 문장을 종결짓는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文接語(sentence clitic) 또는 句接語(phrase clitic)로 분석될 수 있다. 문법 의미는, 주로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의미하는 “事態助詞”로 분류된다<sup>2)</sup>

현대 한어의 動態助詞 “了<sub>1</sub>”과 事態助詞 “了<sub>2</sub>”의 起源은, 일반적으로 漢魏 時期에 출현한 “끝마치다”의 의미를 갖는 어휘 동사 “了 [liau]”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된다. 동사 “了”는, 魏晉六朝 時期에 이르러 “V+O+완성동사(畢, 竟, 已, 訖)”의 構文에 완성동사로 참여하면서 문법화(grammaticalization)의 과정을 밟았으며, 아울러 음성 축약 과정을 거쳐 각각 현대 한어에서 輕聲 [lə]로 발음되는 “了<sub>1</sub>”과 “了<sub>2</sub>”로 문법화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了<sub>1</sub>”의 형성에 대해서는, “V+O+了”의 완성구문이 唐五代 시기에 이르러 “V+了+O”의 어순으로 출현하면서, 동사 “了”가 문법화의 과정을 밟게 되어, 출현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了<sub>2</sub>”의 형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완성동사 “了”가 동태조사 “了<sub>1</sub>”의 단계를 거쳐 “了<sub>2</sub>”가 되었다는 견해이다.<sup>3)</sup> 둘째는 완성구문 “V+O+了”의 위치에서 완성동사 “了”가 직접 사태조사로 문법화되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sup>4)</sup> 셋째는 宋元 時期의 동태조사 “了<sub>1</sub>”과 어기사 “也”가 함께 자주 출현하면서 음성적으로 합병되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있다.<sup>5)</sup>

수 십 년 동안 학계에서는 동사 “了”에서 조사 “了<sub>1</sub>”과 “了<sub>2</sub>”로의 문법화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 문법화의 動因

명칭으로 부른다. “了<sub>1</sub>”의 용법 및 문법 의미에 관해서는 Chao, Yuen Ren (1968), 呂叔湘(1980), Li and Thompson(1981)을 주로 참조하라.

2) 중국학자들은 “了<sub>2</sub>”를, “事態助詞”, “語氣詞” 등으로 부른다. “了<sub>1</sub>”의 용법 및 문법 의미에 관해서는, Chao, Yuen Ren(1968), 呂叔湘(1980), Li and Thompson(1981)을 참조하라.

3) 이 견해에 관해서는 王力(1958), 太田辰夫(1987), 蔣紹愚(1994)을 참조하라.

4) 이 견해에 관해서는 曹廣順(1995), 吳福祥(1995)을 참조하라.

5) 이 견해에 관해서는 劉勛寧(1985)를 참조하라.

상세한 문법화 과정, 그리고 정확한 문법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sup>6)</sup>

본 논문은 14세기 무렵 元代 北方 口語를 반영한 것으로 믿어지는 《古本老乞大》(앞으로 古本으로 약칭)에 사용된 “了”의 용법과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了”의 문법화 과정과 시기에 대하여 보다 나은 이해를 기하고자 한다.<sup>7)</sup>

## II. 《古本老乞大》의 “了”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古本》의 “了”는 모두 255회 출현한다. 그 중에서 “完結, 끝마치다”를 의미하는 동사적 용법의 “了<sub>a</sub>”로 확인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용례가 모두 23회, “결과를 표시하는” 動相補語 용법의 “了<sub>b</sub>”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45회, “동작 또는 변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동태조사 “了<sub>c</sub>”의 용법으로 사용된 예가 163회, “상태의 실현”을 의미하는 동태조사 “了<sub>d</sub>”의 용법으로 사용된 예가 12회, 그리고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의미하는 사태조사 “了<sub>e</sub>”의 용법으로 사용된 예가 12회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1. 完結 動詞: 了<sub>a</sub>

현대 한어에서 동사 “了<sub>a</sub> [liɑu]”는, “吃得了<sub>a</sub>”, “吃不了<sub>a</sub>” 등에서 可能補語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口語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古

6) “了<sub>1</sub>”과 “了<sub>2</sub>”의 문법화 과정과 시기에 관해서는, 王力(1958), 將紹愚(1994), 太田辰夫(1987), 趙金銘(1979), 梅祖麟(1981, 1999), 曹廣順(1995), 吳福祥(1996, 1998), 潘維桂, 揚天戈(1980, 1984), 孫錫信(1992), 李訥, 石毓智(1997), 劉勛寧(1985) 등을 참조하라.

7) 《古本老乞大》는 《舊本老乞大》라고도 부른다. 《古本》의 편찬과 간행 및 자세한 書誌 事項에 관해서는 鄭光 等(2000), 李泰洙(2003)을 참조하라.

本》에는 “了<sub>a</sub>”가 동사로 사용된 예가 23회 보인다. 그중에서, 독립적인 본동사로 사용된 예가 6회, “V+O+了<sub>a</sub>” 형식의 완성구문에서 보어로 사용된 예가 2회, “V+了<sub>a</sub>”의 動補複合構造에서 결과보어로 사용된 예가 13회, 그리고 “V+得+了<sub>a</sub>”의 가능보어로 사용된 예가 2회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그중에서 본동사로 사용된 “了<sub>a</sub>”의 예이다.

- (1) 湯水茶飯, 都了<sub>a</sub>也. (30a)  
탕과 음식은 다 됐습니다.
- (2) 比及喫了<sub>c</sub>時, 俺也了<sub>a</sub>也. (7a)  
식사할 때쯤이면, 나도 끝마칠 겁니다

“V+O+了<sub>a</sub>” 형식의 소위 완성구문은 魏晉부터 唐五代에 이르기까지 “V1+O+了<sub>a</sub>, VP2”의 문형으로 종속절에 자주 출현하는데, 이 구문의 의미는 “V1+O’의 동작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VP2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문법적 의미를 갖는 구문이었다. 어휘 동사 “了<sub>a</sub>”는 이 구문에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문법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古本》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종속절과 주절에 사용된 용례가 각각 1회씩 보인다.

- (3) a. 梳頭洗面了<sub>a</sub>, 先喫些箇醒酒湯 或是點心<sup>8)</sup> (古本 34a)  
머리 빗고 얼굴 씻고 나서, 먼저 술 깨게 하는 탕이나 간식을 먹습니다.
- b. 梳頭洗面了<sub>a</sub>, 先喫些箇醒酒湯 或是點心. (翻譯 하53b)
- c. 梳了<sub>c</sub>頭洗了<sub>c</sub>面, 先吃些箇醒酒湯 或是點心. (新釋 39b)
- d. 梳了<sub>c</sub>頭洗了<sub>c</sub>臉, 先喫些箇醒酒湯 或是點心. (重刊 하50a)

8) Sun(1996: 90)은 이곳의 “梳頭洗面了”를 인용하여 “了<sub>2</sub>”로 해석하고 있지만, 문맥과 《翻譯》의 한국어 번역 그리고 《新釋》과 《重刊》의 개정된 漢語를 보면, 완성동사로 해석되어야 한다.

《古本》과 《翻譯老乞大》(앞으로 翻譯으로 약칭)의<sup>9)</sup> 시기에는 아직도 이러한 문형이 사용될 수 있었지만, 18세기의 《新釋老乞大》(앞으로 新釋으로 약칭)와 《重刊老乞大諺解》(앞으로 重刊으로 약칭)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는 통사 형식이 아니었던 듯하다. 모두 완성 동태조사가 사용되는 “V1+了<sub>c</sub>+O, VP2”의 새로운 문형으로 수정되고 있다. 《古本》에는 이외에도 (3a)와 동일한 완성구문의 형식에서 완성동사 “罷”가 사용된 예가 4회 출현한다. 모두 종속절에서 “V1+O+罷 VP2”의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18세기의 《新釋》과 《重刊》에서는 이러한 완성구문 형식이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다음은 “V+O+了<sub>a</sub>”의 완성구문이 主節에 출현하는 특이한 경우이다. 《古本》에는 이러한 용례가 하나 보인다.

- (5) a. 恁休疑惑! 成交了<sub>a</sub>者! (古本 36a)  
 당신은 의심 마시오! 흥정을 마칩시다!  
 b. 你休疑惑! 成交了<sub>a</sub>罷! (翻譯 히60b)  
 c. 你不要疑惑! 就成了<sub>b</sub>交易罷! (新釋 42a)  
 d. 你不要疑惑! 就成了<sub>b</sub>交易罷! (重刊 히56b)

(5-a)의 “成交”는 “흥정/매매를 맺다”는 의미의 “V+O” 구조로 분석된다. 이 구조에 완성 동사 “了<sub>a</sub>”가 부가되고 마지막으로 “勸誘”의 의미를 갖는 어기사 “者”가 문말에 부착 되어 있다.<sup>10)</sup> 《古本》과 《翻譯》에서는 아직도 “V+O+了<sub>a</sub>”의 완성 구문이 사용되고 있지만, 《新釋》과 《重刊》에서는 이러한 구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모두 결과 보어의 “了<sub>a</sub>” 또는 동상보어 “了<sub>b</sub>”로 해석될 수 있는 “V1+了<sub>a/b</sub>+O” 문형으로 수정되어 있다.

9) 《翻譯老乞大》의 漢語는 15세기에 수정된 듯하며, 한국어 번역은 15세기말 또는 16세기 초 한국인 崔世珍이 작업한 것으로 알려진다.  
 10) 또 하나의 가능한 분석은, “V+O”구조에 새로운 상황 출현의 사태조사 “了<sub>a</sub>”와 勸誘의 어기사 “者”가 부가된 구조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新釋》과 《重刊》에서 動相補語가 사용된 방식으로 개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成交了者”의 “了”는 보어로 사용된 완성동사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V+了<sub>a</sub>”의 動補複合構文에서 사용된 동사 “了<sub>a</sub>”는 선행하는 “V”의 완결을 의미하는 결과보어로 사용되었으며, 現代漢語의 결과보어에 사용되는 동사 “完”과 동일한 의미이다. 《古本》에는 “V+了<sub>a</sub>” 형식의 결과보어로 사용된 예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13회 확인된다. 그러나 《古本》 시기에는 “V+了<sub>a</sub>” 형식은 동상보어 및 동태조사 가 사용된 “V+了<sub>b/c</sub>”와 동일한 동사 형식과 동일한 語音 [liau]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면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동사가 사용된 결과보어 구문과, 동상보어가 사용된 문형 및 완성의 동태조사가 사용된 문형은 또한 의미상으로도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맥이 없는 경우, 구별하기가 힘들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현대 한어의 예를 보라.

- (6) a. 吃完飯, 再走罷!  
       식사를 끝마치고 갑시다!  
       b. 吃了<sub>1</sub>飯, 再走罷  
       식사하고 갑시다!

(6a)는 “끝마치다”는 의미의 완성 동사 “完”이 결과 보어로 사용되었으며, (6b)는 완성 동태조사 “了<sub>1</sub>”이 사용되고 있다. (6a)의 動補複合語 “吃完”의 정확한 문법상의 의미는 먹는 행위가 起點(initial endpoint)에서 시작하여, 中間過程(internal interval)을 거쳐 終點(final endpoint)까지 지속되어 완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6b)의 동태조사가 첨가된 “吃了”의 문법상의 의미는 “분해될 수 없는 하나의 완정한 전체 사건으로서 외부에서 관찰된” 먹는 행위가 발생했음을 말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먹는 행위가 시작되고 일정 기간 지속되고 끝나는 동작의 내부에 시각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먹는 동작을 전체로 파악될 따름이다. 따라서 먹는 행위가 완결되어 끝났는지, 중간에 종결되었는가의 여부는 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먹는 동작이 발생하고 난후에, 떠나는 것만을 의미한다. 물론 일반적인 문맥에서는 (6b)도 식사행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해석은 화용적 해석에 의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현대 한어에서 사용되는 동태 조사 “了<sub>1</sub>”은 결코 동작이 완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sup>11)</sup>

《古本》에서 결과보어로 사용된 “了<sub>a</sub>”를, 완성 동태조사 “了<sub>c</sub>”와 구별하기 위하여, 필자는, 앞뒤의 문맥 그리고 《新釋》과 《重刊》에서 개정된 漢語를 주로 참조했다. 그 결과 13 개의 용례를 찾아냈다. 共起하는 동사로는 동작 지속 동사로서 “喫” 9회, “打, 묵다” 2회, “駝, 신다” 1회, “寫” 1회 확인할 수 있었다. 통사 환경은 종속절의 배경사건에 6회 그리고 주절의 전경 사건에 6회 출현하는데, 다음에 종속절과 주절에 출현하는 용례를 하나씩 예시한다.

- (7) a. 俺喫了<sub>a</sub>時, 與他將些去! (古本 12a)  
우리가 다 먹고 나면 저 사람에게 조금 가지고 갑시다.  
b. 我們吃完了<sub>c</sub>, 給他帶些去. (新釋 14a)  
c. 我們喫完了<sub>c</sub>, 帶些去給他. (重刊 상38b)
- (8) a. 比及駝了<sub>a</sub>時, 他也喫了<sub>a</sub>飯也. (古本 13a)  
짐 싣기를 마칠 때쯤 그도 밥 먹는 것을 마칠 것이오.  
b. 等到打完了<sub>c</sub>朶子, 他飯也好吃完了<sub>c</sub>. (新釋 15a)  
c. 等到打完了<sub>c</sub>朶子, 他飯也喫完了<sub>c</sub>. (重刊 상41b)

흥미로운 사실은 종속절에 출현하는 경우에는, 6회 모두 “조건” 또는 “가정”을 의미하는 조사 “時” 또는 “呵”와 함께 그리고, 주절에 출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의미하는 어기사 “𐄂”가 항상 함께 출현한다는 점이다. 특히 (8a)의 “他也喫了<sub>a</sub>飯也”은 앞으로 발생할 사건의 의미이므로, 이곳에 사용된 “了”가 완성 동태조사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V+了(+O)”의 형식으로 출현하는 “了”는 전형적인 동태조사 “了<sub>a/b</sub>”가 출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지

11) Chu(1976)와 Smith(1997: 264-5)를 참조하라

않으며, 또한 의미상의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다.

다음은 “V+得+了<sub>a</sub>”의 가능식 동보구조의 보어로 사용된 예로서 “了<sub>a</sub>”는 “完結”의 동사적 의미를 아직 가지고 있다. 共起하는 동사는 “切, 썰다”, “稅, 베끼다”가 각각 1회씩 사용되었는데, 다음은 그 중의 한 예이다.

- (9) a. 若干草幾時切得了<sub>a</sub>? (古本 6a)  
 이 많은 짚을 언제 다 썰 수 있겠습니까?  
 b. 許多草幾時切得了<sub>a</sub> (翻譯 상 19a)  
 c. 許多草幾時纔割得完呢 (新釋 6b)  
 d. 許多草幾時割得完了<sub>e</sub>? (重刊 상17a)

2. 結果의 動相補語: 了<sub>b</sub>

呂叔湘(1980: 316)에 의하면, 현대 한어의 동태조사 “了<sub>1</sub>”의 용법 중의 하나는, 일부의 동사 뒤에 부가되면 동작이 결과가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共起할 수 있는 동사 목록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용법의 “了<sub>1</sub>”은 동사 뒤에 붙는 보어 “掉”와 유사한 의미를 표시하며, “處置式”, “命令文”, 또는 앞에 조동사를 갖는 동사 뒤에 부가될 수 있다. Chao(1968: 446)는 이러한 보어를 동작의 단계를 표시하는 “動相補語(Phase complement)”로 분류하고 結果補語(Resultative complement)와는 구분하고 있다.<sup>12)</sup> 현대 한어에서 動相補語 용법의 “了<sub>1</sub>”은 주로 “감소하는 의미를 갖는 동사 부류(減類)”와 함께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의미를 갖는 동사 부류(加類)”와는 보통 共起하지 않는다.<sup>13)</sup> 現代漢語에서 이러한 動相補語 용법의 “了”는 일반적으로 완성 동태조사 “了

12) 중국학자들은, “Phase complement”를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약간의 편차가 있다. 필자가 확인한 예로는, “動相補語” 이외에, “狀態補語”, “時段語”, “唯補詞”, “時間詞”, “指動補語” 등의 번역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3) 沈家煊(1999: 163)을 참조하라.

了<sub>1</sub>”의 구성원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는 세분화의 필요 때문에 “了<sub>b</sub>”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動相補語는 문법화 과정에서 結果補語보다는 더 문법화가 진행된 단계이지만, 전형적인 完成의 동태조사 “了<sub>1</sub>”보다는 덜 문법화된 보어의 일종으로서, 통사적으로나, 의미상으로 완성 동태조사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了<sub>b</sub>”는 45회의 용례가 《古本》에서 확인된다. 대부분이 명령문, 화자의 제안 또는 권유의 어기를 갖는 문,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 “了”, 그리고 동작이나 변화를 의미하는 동사와 함께 主節의 “V+了(+O)”의 통사 환경에서 사용되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하는 경우의 “了”는 “了<sub>b</sub>”로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종속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완성 동태조사 “了<sub>c</sub>”와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古本》에서 “了<sub>b</sub>”와 함께 共起하는 동사로 “減類”로 분류될 수 있는 동사는, “減 덜다, 走 가다, 失走 잘못 가다, 損 망가뜨리다, 毀 찢다, 悞 지체시키다, 免 면하다, 別散 헤어지다, 摘 벗기다, 去 제거하다, 打 자르다, 賣 팔다, 傷 다치게 하다, 散 흩어지다, 撇 버리다, 離 떠나다, 壞 망가뜨리다, 去 제거하다, 傷 부상 입히다, 走 떠나다” 등이 있다. 그리고 소위 “加類” 또는 중립적인 의미의 동사에도 “了<sub>b</sub>”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添 보태다, 使 사용하다, 評 평가하다, 筭 계산하다, 喫 먹다, 安 놓다, 收拾 정리하다, 刷 솔질하다, 隔 방해하다, 看 보다, 上 올리다” 등이 있다.

- (10) 倒隔了<sub>b</sub>你買賣. (古本 27a)  
도리어 당신의 장사를 방해할 겁니다.
- (11) 不曾傷了<sub>b</sub>性命. (古本 9a)  
생명을 상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 (12) 有價錢時, 賣了<sub>b</sub>者! (古本 20a)  
가격이 꽤 되면 팔아 버리시오!

3. 動作 또는 變化的 完成: 了<sub>c</sub>.

현대 한어에서 보통 “了<sub>1</sub>”로 구분되는 동태조사가 동작 또는 변화를 의미하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작 또는 변화의 완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용법의 “了<sub>1</sub>”을 “了<sub>c</sub>”로 다시 하위분류함으로써 형용사 또는 정태 동사 뒤에 부가되는 “了<sub>d</sub>”과 구별할 수 있다. “了<sub>c</sub>”는 完成相(Perfect aspect)의 전형적인 구성원으로 분석될 수 있다. 完成相은 完了相(Perfective)의 하위 범주이다. 完了相은 사건이 하나의 분해될 수 없는 완전한 전체로 간주되어 사건의 외부에서 관찰되는 視點을 대표하며, 완성상은 이렇게 관찰된 사건이 발화 시점 또는 기타 참조 시점 이전에 발생이 완료됨을 표시한다.<sup>14)</sup>

《古本》에는 “了<sub>c</sub>”로 분류될 수 있는 용례가 163회 확인된다. 현대 한어에서의 용법과 동일하게, 다양한 종결동사, 동작 지속 동사와 결합하고 있으며, 배경사건 및 전경사건에 고르게 사용되고 있다. “了<sub>c</sub>”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곳은 바로 先時性을 표시하는 통사 구조에서 종결동사와 결합하는 “了<sub>c</sub>”이다. 즉, 從屬節의 背景事件에서 종결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참조 시점이 되는 주절의 전경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從屬節의 배경 사건이 발생했음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主節의 前景事件에 “了<sub>c</sub>”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發話 時點 즉 現在 時點이 참조 시점이 되므로, 주절의 사건이 이전에 주절의 사건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다음 예는 종결동사와 함께 사용된 “了<sub>c</sub>”의 용례이다.

(13) 都忘了<sub>c</sub>, 那裏記得來?

다 잊었으니, 어찌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14) 明日病尙了<sub>c</sub>時, 大醫根底重重的酬謝也. (30b)

내일 병이 나오면 의원께 많이 사례하겠습니다.

14) Comrie(1976), Smith(1997), 戴耀晶(1997) 등을 참조하라.

(15) 今年就牢裏死了<sub>c</sub>. (古本 8b)  
올해 옥에서 죽었습니다.

(16) 俺這月初一日離了<sub>c</sub>王京. (古本 1a)  
나는 이 달 초하룻날 왕경에서 떠났습니다.

(17) 已贏了<sub>c</sub>也. (古本 29b)  
내가 이겼습니다.

“了<sub>c</sub>”는 동작 지속 동사와 결합할 수도 있다. 동작 지속 동사는 보통 동작의 起點, 終點 그리고 중간과정의 내부 구조를 갖지만, “了<sub>c</sub>”와 결합하면 전체 사건이 분해될 수 없는 하나의 完整的 전체로 외부에서 관찰됨으로써, 사건이 단순히 전체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는 표시하지 않는다. 다음은 동작 지속 동사와 함께 사용된 “了<sub>c</sub>”의 예이다.

(18) 早來, 喫了<sub>c</sub>乾物事, 有些乾渴. (古本 18a)  
아침에 마른 것을 먹어서 조금 목이 마르다.

(19) 官人每睡了<sub>c</sub>時, 教一箇伴當伺候者! (32a)  
관리들이 잠들면, 친구 한 사람을 시켜 보살피게 하시오!

(20) 咱每飯也喫了<sub>c</sub>也. (古本 17b)  
우리는 밥도 먹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 한어에서 “V+了<sub>c</sub>+O”의 형식으로 주절의 진술문에 사용될 경우, 목적어가 양화된 명사구나 고유 명사가 아니고 光杆名詞 (bare noun)가 출현하면, 문장을 종결짓기 위하여 보통 사태조사 “了<sub>2</sub>”를 필요로 한다. 《古本》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다만 “了<sub>c</sub>” 대신에 여기서 “也”가 사용되고 있다.

- (21) 喫了三十兩的酒。(古本 30a)  
서른 냥 어치 술을 먹었습니다.
- (22) 客人們洗了面也。(古本 17b)  
손님들이 얼굴을 씻었습니다.

《古本》에 사용된 “了<sub>c</sub>”의 문법 의미는 이미 현대 한어와 동일하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了<sub>c</sub>”는 종결 상황 및 동작 지속성 상황과 결합할 수 있다. 둘째, 동작 지속성 상황과 결합하는 경우에 화자의 視點은 동작 외부에서 사건을 분해할 수 없는 완정체로 파악하고 있다. 셋째, 배경사건과 전경사건에 모두 출현한다. 넷째, 이미 발생한 사건을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표시할 수 있지만, 참조시점에 대하여 상대적인 先時이어야 한다. 다섯째, 배경사건에 출현하는 경우의 참조시점은 주절의 전경사건의 발생시점이 되며, 주절의 전경사건에 출현하는 경우에는 말화시점이 된다. 여섯째, 주절의 진술문에 출현하는 “V+了<sub>c</sub>+O” 형식에서 목적어가 光杆名詞(bare noun)일 경우에는 문장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보통 여기서 “也”를 필요로 한다.

#### 4. 狀態의 實現: 了<sub>d</sub>

현대 한어에서 완성 동태조사 “了<sub>1</sub>”이 형용사를 비롯한 靜態動詞와 결합하면 이들 술어가 서술하는 상태나 정태 상황의 완결, 종결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술어가 서술하는 “상태 또는 정태 상황의 실현”을 의미한다. 즉, 일종의 정태 상황의 출현을 의미한다. 우리는 완성 동태조사 “了<sub>1</sub>”의 또 하나의 기능을 “了<sub>d</sub>”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古本》에는 “了<sub>d</sub>”와 결합하는 형용사 및 정태동사의 용례 12회 확인되며, “遲, 늦다”, “昏, 기질하다”, “少, 적다”, “旱, 가물다”, “飽, 배부르다”, “無, 없다”, “枉, 구부러지다”, “醉, 취하다”, “大, 크다”, “歪, 기울다”, “乾, 마르다” 등과 결합하고 있다

(23) 那客人射的昏了<sub>d</sub>, 蘇醒回來, (古本 8b)  
그 손님이 (화살에) 맞아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

(24) 酒也醉了<sub>d</sub>, 茶飯也飽了<sub>d</sub>也. (古本 29a)  
우리는 술도 취하고 음식도 배부릅니다.

(23)의 “昏了”는 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절한 상태로 변화를 표시하며, 주절의 깨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先時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24)의 “飽了”는 이전의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로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는데, 참조 시간은 발화 시간, 즉 현재이다. 의미상으로 말해서, “상태의 실현”은 실제적으로 변화의 완성으로 조성된 결과이다. 따라서 “완성”과 “실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어떠한 정태 상황이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그 정태 상황의 존재하게 되는 변화의 결과이다. 따라서 “了<sub>d</sub>”는 起動相(Inchoative aspect)와 대단히 유사한 문법 의미를 표시한다.

“了<sub>d</sub>”와 “了<sub>c</sub>”는 결합하는 상황 유형에서만 서로 상보적일 뿐, 기타 방면에서는 동일한 특성을 보여 준다. 첫째, “了<sub>d</sub>”와 “了<sub>c</sub>”는 똑같이 背景事件과 前景事件에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이미 발생한 사건을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참조시간에 대한 상대적 先時性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了<sub>c</sub>”와 “了<sub>d</sub>”는 하나의 형태소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현대 한어의 “了<sub>1</sub>”에 해당한다.

《古本》에는, “了<sub>c</sub>”의 출현 횟수가 164회인데 반하여, “了<sub>d</sub>”는 십분의 일이 채 안 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了”의 문법화 과정에서 고본에 반영된 언어가 “了<sub>d</sub>”의 기능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던 상태의 언어였기 때문일 것이다. 《古本》에서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표시하는 어기사 “也”가 “Adj+也”의 통사 위치에서 33회나 사용되고 있으며,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5. 새로운 狀況의 出現: 了<sub>e</sub>.

현대 漢語의 사태조사 “了<sub>2</sub>”, 즉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의미하는 “了<sub>e</sub>”의 용례를 통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은 “V(+了)+O+了<sub>e</sub>”의 통사 환경이다. 古本에는, “V+O+了”의 통사환경에서 “了”가 3회 출현하지만 2회는 진술했듯이 완성동사 “了<sub>a</sub>”의 용법으로 사용된 예이고, 다음에 드는 예만이 유일하게 “V+O+了”의 통사환경에서 “了<sub>e</sub>”가 사용된 예임을 확인할 수 있다.

(25) 如今都是板慢了<sub>e</sub>. (古本 11b)

이제는 다 널판이다.

이외에도 《古本》에는, 주절의 문말 위치에서 “V/Adj+了” 형식으로 출현하는 문형이지만, 일부의 문장은 “동작 또는 변화의 완성”이나 “상태의 실현”을 의미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의미하는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了”는 선행하는 동사 또는 형용사에 첨가된 “了<sub>e</sub>” 또는 “了<sub>d</sub>”가 아니라 “了<sub>e</sub>”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의 “了”는 진술문의 문말에 사용되었지만 동작의 완성 또는 상태의 실현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발생할 일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상황의 출현”의 의미를 표시하는 “了<sub>e</sub>”의 용례로 볼 수 있다.

(26) 連其餘的馬都染的壞了<sub>e</sub>. (古本 25a)

다른 말까지 다 전염시켜 병들게 될 겁니다.

(27) 比及到那裏尋了<sub>e</sub>店時, 那兩箇到來了<sub>e</sub>也. (古本 19a)

거기 도착해서 여관 얻을 때쯤이면 그 두 사람도 올 거요.

(27)의 “到來”는 어휘 의미상 완료보어 “了<sub>a</sub>” 또는 동상보어 “了<sub>b</sub>”가 부가될 수 없는 종결동사이며, 문장이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작의

완성”을 의미하는 “了<sub>e</sub>”로 분석 될 수도 없다. 그리고 동작 동사이므로 “상태의 실현”을 의미하는 “了<sub>d</sub>”도 될 수 없다. 남아 있는 유일한 선택은 “了<sub>e</sub>”밖에 없는데, 동일한 의미를 표시하는 “也”가 문말에 또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의 출현”이라는 문법 의미 표시에 구용법의 사태조사 “也”와 신용법의 “了<sub>e</sub>”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음 예문은 강제 부사를 갖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거나 명령문에 사용되어 “새로운 상황”의 인식 또는 출현”을 표시하고 있는 “了<sub>e</sub>”의 예를 보여준다. 현대 한어에도 이와 같은 용법이 있다.

(28) 俺好生飽了<sub>e</sub>. (12b)  
우리는 아주 배부릅니다.

(29) 休教雨雪濕了<sub>e</sub>! (古本 29b)  
눈비에 젖게 하지 마시오!

《古本》에는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의미하는 사태조사 “了<sub>e</sub>”가 12회 밖에 확인되지 않는데 반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의 어기사 “也”는 120회가 사용되고 있다.<sup>15)</sup> 이 시기의 어기사 “也”는 대략 다음과 같이 서로 연관된 두 종류의 문법 의미를 표시하고 있었다. 첫째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상황의 변화”의 의미이며, 둘째는, “판단 또는 긍정”을 의미한다. 특히 古本에는, (33)의 예에서 보듯이, 문말 위치에서 “了+也” 형으로 출현하는 예도 29회나 발견된다.

太田辰夫 (1958: 387)가 지적했듯이, 현대 한어의 문말 조사 “了<sub>2</sub>”에 해

15) 《古本》보다 약 100년 후인 15 세기에 수정된 《翻譯》의 漢語 에서는 대부분의 “也”가 “了”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어, “也”의 출현 횟수가 40회로 줄어든다. 18세기의 《新釋》과 《重刊》에서는 각각 1회의 용례만 보인다. “了<sub>2</sub>”의 형성 과정에서 “也” 및 기타 “來”, “去” “有” 등의 유사한 기능의 기존의 문말 어기사와 13세기를 전후로 새로이 발전하기 시작한 “了<sub>e</sub>”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이다.

당되는 “了<sub>e</sub>”는, 《古本》보다 약 100 년 전의 南宋의 《朱子語類》에서 그 先例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曹廣順(1995: 89-96)의 연구에 의하면, 元代의 문헌에는 “了<sub>e</sub>”의 사용이 그다지 보편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也”의 사용이 더 보편적이다. 사태 조사 “了<sub>e</sub>”의 발전은 지역과 방언에 따라 편차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朱子語類》는 남방 방언에 기초한 것이고 《古本》은 바로 元代의 북방 漢語에 기초하여 쓰여 졌기 때문일 것이다. 《古本》에서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표시하는 문말 어기사는 아직도 “也”가 그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了<sub>e</sub>”는 이제 막 유사한 기능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단계였으며, “也”와는 경쟁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 Ⅲ. 맺는 말

본 논문은 《古本》에 출현하는 255회의 “了”를 분석하여, 동사적 용법의 “了<sub>a</sub>”가 23회, 동상보어 용법의 “了<sub>b</sub>”가 45회, 동작 또는 변화 완성의 “了<sub>c</sub>”가 163회, 상태 실현의 “了<sub>d</sub>”가 12회 그리고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의미하는 사태조사 “了<sub>e</sub>”가 12회 출현하는 것을 확인했다. 문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이러한 “了”의 다양한 용법은 현대 漢語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만, 《古本》의 용법과 비교할 때, 다음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古本》에서는 동사적 용법의 “了<sub>a</sub>”가 23회 출현할 정도로 아직도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결과보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現代 漢語에서는 이러한 용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복합어 또는 可能補語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끝마치다”의 동사적 의미가 남아 있다.

둘째, 《古本》에는, 우리가 확인 가능한 용례만 하더라도, “了”의 전체 출현 횟수 255회 중에서 45회를 점할 정도로 동상보어 용법의 “了”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 동사와 함께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現代 漢語에서는 일부의 “감소하거나 없어지는(減流)” 의미를 갖는 동사와 함께 선별적으로만 사용된다.

셋째, 동작 지속 동사 또는 종결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동작이나 변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동태조사 “了<sub>c</sub>”은 163회 출현함으로써 전체 출현 횟수의 삼분의 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넷째, 형용사 또는 정태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상태의 실현”을 의미하는 동태조사 “了<sub>d</sub>”은 12회 밖에 출현하지 않을 정도로 “了<sub>c</sub>”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아마도 《古本》 시기는, 동사 “了<sub>a</sub>”의 문법화 단계에서 “상태 실현”의 문법 의미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古本》에서는 “상태의 실현”과 유사한 “새로운 상황 출현”의 문법 의미를 표시하는 어기사 “也”가 문말 위치에서 형용사 및 기타 술어와 함께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了<sub>c</sub>”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의미하는 사태조사 “了<sub>e</sub>”의 용례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것은 “상태의 실현”을 의미하는 조사 “了<sub>d</sub>”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끝마치다”의 의미를 갖는 어휘 동사가 문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상의 첫 虛化 段階는, “결과”를 의미하는 동상보어 “了<sub>b</sub>”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동작이나 변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동태조사 “了<sub>c</sub>”, 세 번째 단계는, “상태의 실현”을 의미하는 동태조사 “了<sub>d</sub>”였으며, “새로운 상황의 출현”이라는 문법 의미는 세 번째 단계인 “상태의 실현”이 더욱 虛化됨으로써 형성되는 문법화의 최종단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의미의 虛化 과정에 대한 추론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사 문헌 자료에 의하면, “끝마치다, 끝나다”의 의미를 갖는 어휘 동사 “了<sub>a</sub>”의 문법화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非離散的(non-discrete)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了<sub>a</sub> (동사) > 了<sub>b</sub> (동상보어 了<sub>1</sub>) > 了<sub>c</sub> (완성 了<sub>1</sub>) >  
 了<sub>d</sub> (실현 了<sub>1</sub>) > 了<sub>e</sub> (사태 조사 了<sub>2</sub>)

이러한 문법화의 傾斜(cline)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아갈수록, 문법화의 정도가 深化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어휘 범주에서 문법 범주로 변화

게 되며, 실제적인 어휘 의미는 漂白되어 점점 더 추상적인 문법 의미로 변하게 된다. 우측 끝에 이르면 어휘적 의미는 완전히 상실되어, “끝마치다”의 어휘적 의미와 “새로운 상황의 출현”의 문법 의미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게 된다.

“了”의 문법화 과정에서 《古本》이 반영하고 있는 漢語는 문법화의 첫 번째 단계인 “了<sub>b</sub>”와 두 번째 단계인 “了<sub>c</sub>”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동사적 용법도 아직도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세 번째 “了<sub>d</sub>” 및 네 번째 단계 “了<sub>d</sub>”의 기능은 아직 맹아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金光照. 1998. 《翻譯老乞大》의 조사 “了”, “來”, “也”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에 관하여. 中國文學 第30輯
- 鄭光 等. 2000. 《元代漢語本《老乞大》》. 慶北大學校古典叢書 9. 慶北大學校出版部: 大邱.
- 李泰株. 2003. 《《老乞大》四種版本語言研究》. 語文出版社: 北京.
- 王力. 1958. 《漢語史稿》. 科學出版社
- 蔣紹愚. 1994. 《近代漢語研究概況》. 北京大學出版社
- 曹廣順. 1995. 《近代漢語助詞》. 語文出版社 北京
- 戴耀晶. 1997. 《現代漢語時體系統研究》. 浙江教育出版社.
- 馮春田. 1992. 《朱子語類》“得”、“了”、“着”的主要用法分析. 《宋元明漢語研究》. 程湘清 主編 山東教育出版社
- 江藍生. 2000. 《近代漢語探源》. 商務印書館.
- 李訥, 石毓智. 1997. 論漢語體標記誕生的機制. 中國語文 第2期.
- 劉堅, 曹廣順, 吳福祥. 1995. 論誘發漢語詞匯語法化的若干因素. 中國語文 第3期
- 劉勛宇. 1985. 現代漢語句尾“了”的來源. 方言 第2期.

- 呂叔湘 主編. 1980.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99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商務印書館
- 馬希文. 1983. 關於動詞“了”的弱化形式. 中國語言學報 第一期
- 梅祖麟. 1981. 現代漢語完成貌句式和詞尾的來源. 語言研究 第1期
- \_\_\_\_\_. 1999. 先秦兩漢的一種完成貌句式—兼論現代漢語完成貌句式的來源. 中國語文 第4期
- \_\_\_\_\_. 1994. 唐代、宋代共同語的語法和現代方言的語法. 中國境內語言暨語言學 第2期. 梅祖麟. 2000. 《梅祖麟語言學論文集》에 수록. 商務印書館.
- 沈家煊. 1999. 《不對稱和標記論》. 江西教育出版社.
- 石侵. 2000. 淺談助詞“了”語法化過程中的幾個問題. 漢語史研究集刊 第二輯. 巴蜀書社.
- 孫錫信. 1999. 《近代漢語語氣詞》. 語文出版社.
- 太田辰夫. 1987. 《中國語歷史文法》. 蔣紹愨、徐昌華 譯. 北京大學出版社
- 吳福祥. 1996. 《敦煌變文語法研究》. 岳麓書社.
- \_\_\_\_\_. 1998. 重談“動詞+了+賓”格式的來源和完成體助詞“了”的產生. 中國語文 第6期
- 楊永龍. 2001. 《朱子語類》完成體研究. 河南大學出版社
- \_\_\_\_\_. 2003. 《朱子語類》中“了”的語法化等級. 語法化與語法研究(一): 371-399. 商務印書館.
- 趙金銘. 1979. 敦煌變文中所見的“了”和“着”. 中國語文 第1期
- 潘維桂, 揚天戈. 1980. 敦煌變文和《景德傳燈錄》中“了”的用法. 語言論集 1.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_\_\_\_\_. 1984. 宋元時期“了”字的用法, 兼談“了”字的虛化過程. 語言論集 2.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Chao, Yuen Ren. 1968.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 Li and Thompson. *Mandari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C. S. 1997. *The Parameter of Aspect (Second Edition)*.  
Studie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Vol. 43.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Chu, Chauncey. 1976. 'Some Semantic Aspects of Action Verbs'.  
*Lingua* 40: 43-54.
- Sun, Chaofen. 1996. *Word-Order Change and Grammaticalization  
in the History of Chines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Abstract>

The paper identifies the 255 occurrences of the graph “LE” and classifies them into five categories, based on their syntax and semantic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23 occurrences are categorized into a verbal usage, including the usages of a main verb, a resultative complement, and a potential complement. Second, the 45 occurrences are categorized into a phase complement with a sense of “result”. Third, the 163 occurrences are categorized into a perfective marker with a meaning of “completion”. Fourth, the 12 occurrences are categorized into a perfective marker with a sense of “realization”. Fifth, the 12 occurrences are categorized into an inchoative marker with a sense of “new situation”.

주제어 : 《古本老乞大》, 了, 완결동사, 동상보어, 동태조사, 사태조사